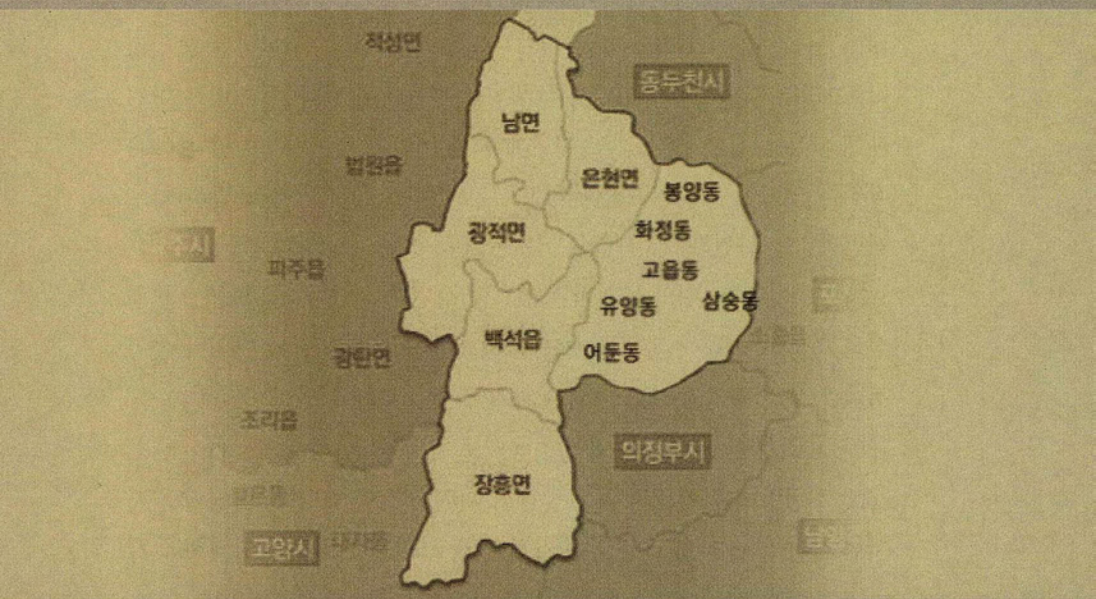
양주시



경기도의 중앙 서울특별시 북쪽에 위치한 시. 동쪽은 포천시, 서쪽은 파주시 · 고양시, 남쪽은 고양시 · 서울특별시, 북쪽은 연천군 · 동두천시와 접한다. 면적은 310.24㎢, 인구는 18만 9,616명(2010년 5월 현재)이다.

백석촌(白石村)의 우정

진정한 친구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옛날 조선 성종 때 이야기이다. 양주읍내에서 약 20리 가량 떨어진 곳에 백석촌이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살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위' 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두꺼비' 였다. 두 사람은 모두 명문가의 후예였으나 불행하게도 두꺼비는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두꺼비의 걸음을 흉내내며 놀려댔다. 그러면 바위는 친구들에게 "너희를 두꺼비를 놀리지 마. 그러다가 벌 받아" 하면서 두꺼비를 편들어 주었다. 두꺼비는 바위에게 너는 마음이 좋아 후일 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바위는 옛날에도 다리가 불편하고도 성공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두꺼비를 격려하였다. 두 사람은 이처럼 우정을 쌓아갔다.

세월이 흘러 바위와 두꺼비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둘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마침내 과거를 보게 되었으나 두꺼비는 결국 다리가 불편하여 길을 떠나지 못하고 바위만 과거 길에 오르게 되었다.

"두꺼비가 불쌍하구나. 과거에 응시도 못하다니."

낯선 한양에 와서도 바위는 줄곧 두꺼비 생각만 하였다. 마침내 과거 시험 보는 날이 되었고 바위는 자신 있게 시험을 치렀으며 당당히 급제하였다. 바위가 금의환향을 하자 제일 기뻐한 사람은 두꺼비였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바위가 출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위도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두꺼비를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더욱 더 가까워졌으나 바위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부임하면서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기를 18년 째 바위는 어느덧 병

조판서의 자리에 올랐다.

두꺼비는 그동안 곤궁한 생활을 했다. 책을 집어던진 지도 오래 되었다. 생각다 못해 곤궁에서 벗어나려 점[卜術]을 배워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집 저집 다니며 점을 쳐주었으나 별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가 비법이라는 것을 배웠으나 신통치 않았다. 바위는 두꺼비가 한양에서 점을 치러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두꺼비를 도와야겠다."

바위는 두꺼비를 찾아갔다. 십여 년 만에 만난 둘은 매우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 서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바위가 두꺼비에게 말했다.

"여보게,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네.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무슨 말인가?"

"내가 말을 타고 남소문을 넘어 갔다 오다가 문 옆 셋째 소나무에 말을 매어 놓겠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소문을 낸 뒤 자네를 청해 점을 치겠네. 그러면 자네는 시치미를 떼고 내가 일러준 곳을 말하게나."

"그거야 뭐가 어렵겠나? 시키는 대로 함세."

두 사람은 이처럼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튿날, 돌연 병조판서 댁에서 말을 잃어버렸는데 고명한 점쟁이에게 점을 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병조판서 댁의 하인이 두꺼비에게 달려왔다.

"대감 타시는 말이 없어졌으니 점을 좀 쳐주시오."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산통을 흔들며 천정을 보고 중얼거리다가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그 말이 지금 남소문 밖 셋째 나

무에 매어 있으니 가보시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하인은 반신반의하며 가르쳐 준 곳으로 달려갔다. 말은 두꺼비가 말한 곳에서 찾았으며 단박에 소문이 퍼져 두꺼비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대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임금의 옥대(玉帶)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장안의 유명한 점쟁이들이 모두 불려갔고 두꺼비 차례도 다가왔다. 근심에 싸인 두꺼비가 방에 앉았는데 한 관원이 그를 찾아왔다.

"선생님! 제가 찾아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옥대를 훔친 자가 바로 저인데 선생님 같은 천하의 점쟁이가 입궐하여 점을 치신다니 미리 찾아온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는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며 처신을 바랬다. 두꺼비는 짐짓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었다.

"내 이미 알았소. 내가 점만 치면 어디다 감추어 놓았는지도 알 수 있소."

"제발 살려주시오. 그 옥대는 우리 집 장 속에다 넣어 두었는데 제가 그것을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 둘 테니 그저 가셔서 주춧돌 밑에 있다고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대로 하려오? 그러면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꼭 그렇게 하겠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옥대를 훔친 박(朴)가란 관원은 곧 집으로 돌아가서 옥대를 가져다가 몰래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 두었다.

다음날 두꺼비는 어전으로 나갔다. 그는 한참동안 점을 치는 체하다

가 이윽고 점괘를 뽑아들고 아뢰었다.

"옥대를 찾았사옵니다. 아직 대궐 밖으로 나가지 않았사오며 대궐 주춧돌 밑에 들어 있을 것이옵니다."

이에 임금이 내시에게 주춧돌 밑을 찾아보게 하니 과연 옥대가 나왔다.

"이것 참 신복(神卜)이로구나!"

임금은 감탄을 거듭하였으며 다른 문제를 또 내려고 하였다. 두꺼비는 다음 날 하겠노라고 아뢰고 물러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제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임금이 내는 문제를 맞히겠는가?

이때 바위가 찾아왔다. 두꺼비는 바위에게 "이제 난 죽었네"하고 힘



없이 말했다. 잘 살게 해 주려고 한 것이 결국 친구를 죽이는 일이 되었으니 바위는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러나 이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약속한 다음날이 되었다. 죽음을 각오한 두꺼비는 아침 일찍 대궐로 향했다. 대전에는 두꺼비가 점을 치는 것을 보려는 신하들로 꽉 찼다. 물론 그 중에는 병조판서인 바위도 있었다. 드디어 임금이 들어왔다. 모인 신하들은 일제히 임금을 맞았다. 임금은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문제를 낼 터이니 맞춰보아라. 맞추면 큰 상을 내리리라."

"예."

두꺼비는 간신히 대답하고 문제를 기다렸다. 곧 한 신하가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다.

"자,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겠는고?"

두꺼비는 산통도 흔들지 않고 묵묵히 상자 앞에 섰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시간이 한참 흐르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바위도 마음을 졸이고 지켜보았다.

이윽고 두꺼비는 "바위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구나"라고 장탄식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허어, 어쩌면 그리도 용하단 말이냐? 참으로 신복이로구나"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었다.

두꺼비가 어리둥절하며 멍하니 보자 임금은 상자를 열어보도록 명을 내렸다. 상자가 열리는데 이게 웬일인가! 커다란 돌 밑에 두꺼비가 깔린 것이었다. 모든 신하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두꺼비는 임금으로부터 후한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먹을 것이 넉넉해진 두꺼비는 그 후부터 점쟁이 노릇을 그만 두고 죽마고우 바위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여생을 살았다고 한다.

신씨비(愼氏妃)의 애마(愛馬)

7일 만에 쫓겨 난 왕비의 슬픔

장흥면(長興面) 부곡리(釜谷里)에서 일영리(日迎里)로 가자면 오른편에 온릉(溫陵)이 보인다. 이 능은 조선조 11대 중종의 원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릉이다. 신씨는 반정(反政)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후로 책봉되었으나 불과 7일 만에 폐위되었다. 반정 주체세력들이 반정 과정에서 왕비의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왕후 신씨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결과였다. 비는 폐위된 뒤 친가인 양주에 머물렀다.

중종은 신씨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반정공신들의 끈질긴 요청을 물리칠 수 없어 비를 폐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신씨가 폐위되어 떠난 후 신씨의 애마가 먹이를 멀리하고 점점 마르더니 이윽고 큰 병에



온릉 단경왕후릉 양주시 장흥면, 사적 제210호



중종 실록

걸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말을 내다 버렸는데, 이 말이 단지 한 번 밖에 가본 적이 없는 신씨의 처소를 용케 찾아 간 것이다.

신씨는 자신을 찾아온 애마를 붙들고 자신의 처지와 말의 충정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날부터 신씨는 자신의 병든 애마를 정성껏 간호했다. 얼마 후 말은 신씨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인지 건강을 회복하고 본래의 위용을 되찾았다.

신씨는 애마와 함께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신씨는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운 님을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죽거든 친정 산에 묻어주고 말이 죽거든 장사 지내주오"하며 숨을 거두었다. 실로 한 많은 일생이었다. 신씨가 죽은 후 건강하던 애마도 차츰 쇠약해지더니 곧 뒤를 따라 죽었다. 애마가 죽은 후 신씨 문중은 유언에 따라 사람과 똑같이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